

역대 최다 金 타이... 태극전사 투혼 끝까지 빛났다

김유진, 태권도 女 -57kg 제패
한국 탁구, 여자 단체전 동메달
이다빈, 태권도 여자 +67kg 銅
서건우·양희영·전웅태 메달 좌절

2024 파리 올림픽이 12일(한국 시간)로 막을 내리는 가운데 태극전사들이 대회 막바지까지 메달 소식을 알렸다. 특히 김유진의 발끝에서 이번 대회 열세 번째 금메달이 나오면서 한국 선수단은 하계 올림픽 역대 최다 금메달 타이 기록을 달성했다.

김유진(울산시체육회)은 지난 9일 오전 프랑스 파리 그랑 팔레에서 열린 이번 대회 태권도 여자 -57kg 금메달 결정전에서 나히드 키야니찬데흐(이란)를 2-0(5-1, 9-0)으로 완파하고 정상에 올랐다.

앞서 김유진은 16강에서 하티제 쿼브라 일킨(튀르키예)을 2-0, 8강에서 스카 일러파크(캐나다)를 2-0, 준결승에서 루오중시(중국)를 2-1로 연파하며 금메달 결정전에 올랐다.

김유진은 금메달 결정전 1라운드에서 키야니찬데흐와 막바지까지 탐색전을 펼쳤으나 종료 13초를 남겨두고 세 차례 연속 감점을 이끌어내며 0-3 리드를 잡았고, 2초를 남겨두고 몸통 공격에 성공하며 5-1로 첫 라운드를 가져왔다.

이어 2라운드에서는 34초 만에 머리 공격으로 3-0 리드를 잡은 뒤 1분 26초에



한국 탁구 국가대표팀 전지희(왼쪽부터)와 이은혜, 신유빈이 지난 10일(한국 시간) 오후 프랑스 파리 아레나 파리 슈드에서 열린 2024 파리 올림픽 탁구 여자 단체전 동메달 결정전에서 독일을 꺾은 뒤 기뻐하고 있다. 뉴스시

몸통 공격으로 5-0까지 격차를 벌였고, 두 차례 상대의 감점과 몸통 공격을 더해 9-0으로 경기를 끝냈다.

이로써 김유진은 2008 베이징 올림픽 임수정 이후 16년 만의 올림픽 태권도 여자 -57kg 금메달리스트가 됐다. 지난

2020 도쿄 올림픽 노골드의 굴욕을 남자 -58kg 박태준(경희대)에 이어 김유진까지 완벽히 털어낸 모양새다.

특히 김유진은 이번 대회 한국 선수단의 열세 번째 금메달 주인공이 되며 하계 올림픽 역대 최다 금메달 타이 기록도 달

성했다. 한국 선수단은 2008 베이징 올림픽과 2012 런던 올림픽에서 13개의 금메달을 수확한 바 있다.

탁구와 태권도에서는 동메달을 추가하며 이번 대회 금메달 13개와 은메달 8개, 동메달 9개 등 총 30개의 메달 수확에 성

공했다. 한국이 메달 30개 고지에 오른 것은 2012 런던 올림픽 이후 12년 만이다.

전지희(미래에셋증권)와 이은혜, 신유빈(이상 대한항공)은 지난 10일 오후 프랑스 파리 아레나 파리 슈드에서 열린 이번 대회 탁구 여자 단체전 동메달 결정전에서 독일에 3-0 완승을 거뒀다.

이어 이다빈(서울특별시청)은 11일 오전 프랑스 파리 그랑 팔레에서 열린 이번 대회 태권도 여자 +67kg 동메달 결정전에서 로레나 브란들(독일)을 2-1(4-2, 5-9, 13-2)로 꺾었다.

태권도의 서건우(한국체대)와 골프의 양희영(키움증권), 근대5종의 전웅태(광주광역시청)는 메달 마지막 문턱을 넘지 못했다. 서건우는 지난 10일 오전 프랑스 파리 그랑 팔레에서 열린 이번 대회 태권도 남자 -80kg 동메달 결정전에서 에디 흐르닉(덴마크)에 0-2(2-15, 8-11)로 고배를 마셨다.

양희영은 같은 날 오후 프랑스 파리 골프 나시오날에서 열린 이번 대회 골프 여자 스트로크 플레이 마지막 라운드에서 3언더파(69타)로 4라운드 합계 6언더파(282타)를 기록하며 공동 4위를 기록했다.

전웅태는 11일 오전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에서 열린 이번 대회 근대5종 남자 결승에서 마지막 종목인 레이저 런(사격+육상)을 두 번째로 출발한 뒤 3위를 유지했으나 마지막 600m에서 세 명에게 역전을 허용하며 6위로 경기를 마쳤다.

한규빈 기자 gyubin.han@jnilbo.com

“전남체육의 경쟁력이 곧 한국체육의 힘”



평만 같았던 낭만의 도시 파리에서 열린 제33회 파리올림픽 참관단의 일정이 폐막식 등을 하루 남겨놓았다.

11일 기준(한국시간) 우리 선수단은 이번 대회 22개 종목에서 262명의 선수단이 출전해 금메달 13개, 은메달 8개, 동메달 9개 등 총 30개의 메달을 획득했다.

이 기록은 지난 2008년 베이징올림픽, 2012년 런던올림픽 등 역대 최고의 성적과 타이틀을 이루는 매우 우수한 기록이다.

이 중 우리 전남의 아들·딸들은 우리나라가 획득한 메달 중 금메달 2개, 은메달 4개, 동메달 1개를 획득하며 대한민국의 올림픽 참가 역사를 새로 쓰는데 큰 몫을 해냈다.

특히 전남 선수들은 새로운 기록이 쓰여진 이번 올림픽에서 종목별로 신기록까지 달성하며 한국 체육 역사의 한 페이지에 당당히 이름을 새기게 됐다.

여자양궁 단체전 10연패라는 대기록을 작성한 순천의 남수현 선수는 개인전은 메달까지 획득하며 실업무대 1년차 선수가 처음 올림픽에 출전해 많은 부담감을 이겨내고 값진 메달을 목에 걸었다. 전남 도청 소속의 펜싱 사브르 최세빈 선수는 개인전에서 세계랭킹 1위를 꺾는 이변을 연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쉽게 4위로 개

인전을 마쳤지만, 단체전에서 윤지수, 전하영, 전은혜 선수와 힘을 합쳐 우리나라 펜싱 여자 사브르 단체전에서 최고 성적인 은메달을 차지했다.

장성 출신으로 사격 25m 속사권총에서 은메달을 획득한 조영재 선수는 한국 사격 역사상 처음으로 25m 속사권총의 메달리스트가 되었고, 화순 출신의 임재지 선수는 지난 도쿄올림픽 대회의 아쉬움을 뒤로하고 동메달을 목에 걸며 한국 여자 복싱 사상 최고의 메달리스트가 되었다.

나주 출신의 배드민턴 안세영 선수는 지난 1996년 애틀란타 대회 방수현에 이어 28년만에 여자 단식 금메달을 따냈다. 화순군청 소속의 배드민턴 정나은 선수도 혼합복식에서 김원호 선수와 함께 합을 맞춰 2008 베이징 대회 이용대-이효정 금메달 이후 16년 만에 최고인 은메달을 차지했다.

여수 출신으로 한국 수영 사상 최초로 올림픽 접영 준결승에 오른 김민섭 선수, 신안 출신의 사격 트랩 이보나 선수, 곡성 출신의 육상 세단뛰기 김장우 선수, 영암 출신 근대5종 서장완 선수 등은 메달 획득에는 실패했지만 최선을 다해 경기를 펼쳐줘 박수를 보낸다.

전남 선수들의 선전을 통해 전남체육의 경쟁력이 곧 대한민국 체육의 힘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됐다. 전남 선수들이 다음 올림픽에서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경기력 지원 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원 방안들을 고민해 한국체육의 중추적인 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

‘동반 메달 약속’ 전웅태·우상혁, 눈물로 올림픽 마쳤다

전웅태, 근대5종 결승서 6위
우상혁, 높이뛰기 결승서 7위

올림픽 무대에서 동반 메달 사냥을 꿈꿨던 근대5종의 전웅태(광주시청)와 육상의 우상혁(용인시청)이 나란히 아쉬움의 눈물을 흘렸다. 전웅태와 우상혁, 스포츠 크라이밍의 전종원(노스페이스)이 함께 약속했던 ‘W 세리머니’ 역시 펼쳐지지 못했다.

한국 근대5종 국가대표 전웅태는 11일(한국 시간) 오전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에서 열린 2024 파리 올림픽 근대5종 남자 결승 마지막 종목인 레이저 런(사격+육상)에서 6위로 결승선을 통과했다.

앞서 전웅태는 지난 8일 오후 프랑스 생상드니 아레나 파리 노르에서 열린 펜싱 라운드에서 235점으로 4위에 오르며 순조롭게 출발했다. 이어 10일 오전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에서 열린 준결승 B조 경기에서는 승마 11위, 펜싱 2위, 수영 3위를 기록한 뒤 레이저 런을 2위로 마치며 각 조 상위 9명에 주어지는 결승 티켓을 획득했다.

결승에 나선 전웅태는 첫 경기인 승마에서 다섯 번째 장애물을 넘던 중 갑작스럽게 말이 코스를 이탈했고, 이어파로 시간이 초과되며 287점으로 11위에 그쳤지만 순위 역순으로 서바이벌 방식으로 치르는 펜싱 보너스 라운드에서는 6점을 추가하며 랭킹 라운드 합산 241점으로 2위에 올랐다.

이어 수영에서는 1분59초41의 기록으로 312점을 획득, 7위에 올라 18명의 선



전웅태가 10일(현지시간) 2024 파리 올림픽 근대5종 남자 결승 승마 경기에서 장애물을 넘고 있다. 뉴스시

수 중 두 번째로 레이저 런을 출발했으나 첫 번째 사격에서 다섯 발을 맞히는데 25초77이 걸리며 3위로 밀려났고, 이후 안정세를 찾으며 순위를 유지했으나 마지막 600m에서 체력이 떨어지며 세 명의 선수에게 역전을 허용했다.

한국 육상 국가대표 우상혁은 같은 날 오전 프랑스 파리 스타드 프랑스에서 열린 이번 대회 육상 남자 높이뛰기 결승에서 예선과 동일한 2m27을 기록하며 7위에 머물렀다.

우상혁은 2m17과 2m22를 한 번에 성공했다. 이어 2m27 1차 시기에서 바를 살짝 건드리며 실패한 뒤 2차 시기에서 깔끔하게 성공했고, 2m31에도 도전했으나 세 차례 모두 실패하며 최종 기록은 2m27이 됐다.

전웅태와 우상혁은 결승을 마친 후 나란히 아쉬움의 눈물을 흘렸다. 이번 대회



우상혁이 10일(현지시간) 2024 파리 올림픽 육상 남자 높이뛰기 결승에서 2m31을 3차 시기에서 실패하고 있다. 뉴스시

출전권을 획득하지 못한 천종원까지 세 명이 시상대 위에서 손가락을 W 모양으로 표현하는 세리머니도 무산돼 더 아쉬움이 컸다.

전웅태는 “경기가 잘 되는 날이 있고 안 되는 날이 있는데 오늘은 안 되는 날 중에 하나였던 것 같다”며 “많은 국민의 응원을 듣고 기대에 부응하고자 했는데 제가 육심을 부린 것 같다. 실수를 참고 이겨내야 하는데 이를 반복했던 것이 아쉽다”고 소감을 밝혔다.

우상혁 역시 “컨디션이 안 좋으면 최대한 좋게 해야 하고, 컨디션이 좋으면 침착하게 뛰어야 하는데 그렇게 못 했기 때문에 아쉬운 결과가 나온 것 같다”며 “지난 3년 동안 나도 힘들지만 김도균 감독님도 힘드셨을 텐데 기쁘게 헤드리지 못한 게 아쉽다. 다음 로스앤젤레스 대회 때는 꼭 기쁘게 헤드리겠다”고 말했다. 한규빈 기자